

#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각 좌초

대한방직의 전주공장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향후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대한방직은 재무구조가 악화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실적 부진이 고착화되면서 공장 매각을 추진했다.

대한방직은 지난 18일 전주공장부지 매각 관련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부영주택과 매각협상을 진행했으나 부영주택 측에서 매수 의사 철회를 밝힘으로써 공개매각이 취소됐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그러면서 "향후 전주공장부지 매각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영주택마저 인수를 포기하면서 대한방직은 전주공장을 당분간 매각하기 쉽지 않게 됐다.

당초 첫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한양제이알디의 대한방직 전주공장 인수 포기 배경으로 꼽히는 '상업용지 용도변경'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이다.

매각 핵심 사안인 상업용지 용도변경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전주시가 이에 대해 완고한 '불허'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매각 시도는 결국 전주공장이

## 부영주택 인수 포기

### '상업용지 용도변경' 압초

### 당분간 매각 쉽지 않을 듯

예상보다 매력도가 크게 떨어지는 부지란 점만 부각시키게 됐다.

대한방직은 이로 인해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한양제이알디와 양해각서(MOU)를 맺은 전주공장 매각가격은 2,005억 원에 달했다.

장부상 올라있는 전주공장 가치를 크게 웃도는 가격으로, 대한방직은 매각 자금을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재무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도 예상했다.

토지에 묶여 있는 차입금도 담장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전주공장을 담보로 당분간 안정적인 외부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 시도 과정에서 2005억 원에 달하는 가격이 형성됐다는 점을 보면 추가 담보 여력도 있다.

문제는 과도한 차입금과 금융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과 현

금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방직은 지난해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매출 1827억 원, 영업이익 47억 원, 순손실 39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 줄었음에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지만,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대한방직의 최근 몇 년간 실적 악화는 섬유업체로서 저유가에 따른 원재료 가격 인하 호재를 만났는데도 벌어진 일어난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의 성장이 지속해 둔화되고, 또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가 이어진 탓으로 분석된다.

전주공장 매각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대한방직은 당분간 자금운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반약 전주공장 매각에 성공했다면 대한방직은 향후 업황 부진에 따른 부담을 그만큼 덜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분간 침체가 이어지더라도 선제적으로 확보한 유동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수입과자 10년간 2배 증가

### 2013년 이후 급증

국내에 정식 신고된 과자류의 수입량이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체 과자류 수입량은 2005년 6만6000에서 2015년 12만 1000t으로 급증했다. 수입금액은 같은 기간 2억1200만달러에서 6억3400만달러로 3배 증가했다.

특히 2010년 이후 과자 수입량이 연평균 15.7%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수입과자 전문점이 급증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더욱 증가했다.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지난해 기준 비스킷 스낵과자 등 과자가 39.5%로 가장 많았다. 초콜릿류(31.4%), 캔디류(28.0%), 빙과류(0.7%), 견(0.3%) 순이었다.

과자류 수입 상위 3개국은 수입량 기준으로 2005년에는 중국

미국, 필리핀, 작년에는 미국, 중국 독일 순이었다.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 국가는 독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14배, 9배, 4배 뛰었다.

수입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국가는 말레이시아, 독일, 대만 등으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24배, 17배, 7배 증가했다.

동남아국가로부터 과자류 수입이 증가한 것은 프링글스, 탐 탐, 출파출스 등 다국적기업의 과자제품들이 미국, 호주, 유럽 등지에서 생산돼 점차 동남아시아로 제조공장이 옮겨진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과자류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과자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과자 구입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김민근 기자

## 전북 친환경자동차 산업, 산업부 경제협력권육성 선정

### 프리미엄 버스용 경량형 VOD시스템 개발 · 상용화 제품제작 · R&D 경쟁력 강화 등 지원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2016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에서 전북은 친환경자동차 산업이 선정됐다.

전북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은 시도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제품 사업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 친환경자동차 산업 선정으로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경량화 기술 등 비즈니스협력형 R&D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주)광전자 주관한 '프리미엄 버스용 경량형 VOD(Video On Demand)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국비 7억원/년(총 사업기간 3년)이 지원된다.

또한 전자부품연구원과 캡티중합기술원이 참여해 상용화 제품제작과 생산공정개선, R&D 경쟁력 강화, 신 시

장 개척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경제협력권산업 친환경자동차사업지원을 통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향후 개발제품의 사업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매출증가와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 무역기금 융자 금리 0.75%p 인하 3월부터... 기존 융자업체도 적용

도내 중소기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마케팅 자금으로 활용되는 무역기금 융자 금리가 오는 3월1일부터 전격 인하한다.

전북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무역기금 융자 금리를

현행 3.5%에서 2.75%로 0.75%p 인하하고 기존 융자업체에도 인화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된 금리에 따라 무역기금 융자를 받은 업체들의 상환이자는 연간

총 10억5,000만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고 업체별로는 최대 383만원의 이자가 경감될 전망이다.

수출마케팅에 대한 필요한 무역기금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초 무역협회 무역기금 홈페이지(http://fund.kita.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업체는 지난해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체이며 최대 2억 원의 자금을 2년 거치 후 4회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가

래은행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다.

김영준 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기존 정책자금은 주로 제조업체의 원자재 구매 자금이나 운영자금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나, 무역기금은 자금

이용도를 수출마케팅 분야로 특화해 비제조업체도 이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기금은 국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 및 방문, 특허·규격인증 획득, 해외홍보, 해외시장조사 등 수출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어 무역업계의 시장개척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신광영 기자



**새 학기 시작** 이마트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전국 의 중고등학교가 본격적인 신학기기를 맞은 가운데 한층 업그레이드된 교과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뽕데기 24,800원에, 해외에서 직접 들여온 비탈리온 패션컬을 69,800원에 판매하며 교복 속에 펼쳐 입기 좋은 데이즈 면티셔츠도 12,900원에 준비했다.

## 인텍 · 한국건설공사 성능인증

### 전북중기청, 폴리카보네이트 마스크 · 탄소섬유 흡콘크리트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19일 (주)인텍과 (주)한국건설기술공사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수여했다.

이번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주)인텍의 '폴리카보네이트 벨크로 일체형 합성수지 마스크', (주)한국건설기술공사의 '탄소섬유를 재활용한 도로포장용 고강도 흡콘크리트' 등이다.

(주)인텍의 성능인증 제품은 유해성

물질차단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레임에 벨크로식 탈부착이 가능한 필터를 사용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게 한 제품이다.

(주)한국건설기술공사는 인증제품은 자전거도로 및 주차장용으로 사용되는 흡콘크리트로서 재활용 탄소섬유를 매트릭스에 고르게 분산시켜 인장력과 변형력을 증가, 균열 발생을 저감시키고 내구성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신광영 기자

## 전북은행, ISA 사전예약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오는 3월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ELS 등 과세상품투자 가능한 통합계좌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ISA의 가장 큰 혜택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다는 것이다.

이번 이벤트는 3월13일까지 전북은행 ISA계좌를 사전 예약하고, 5월31일까지 10만원 이상 입금해 계좌를 개설한 고객

선착순 4천명에게(인터넷 응모분 1천명 포함) 5000원권 문화상품권 또는 해피콘을 증정한다.

또한 초입금 5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4월 29일까지 가입자 중 100명에게는 (JB카드 콘서트 티켓) 2매씩을, 5월 31일까지 가입자 중 21명에게는 기프트카드 200만원권(1명)/20만원권(10명)/10만원권(10명)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정영수 기자

**전북은행은, 고교 경제토론회 개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도내 소재 12개 고등학교 13개팀(58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년 한국은행 전북본부 경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제토론회는 도내 고등학생들이 기초적인 경제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경제의식을 함양해 합리적인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북지역 경제현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비롯해 경제퀴즈 대회, 한국은행과 통화정책에 대한 강의, 경제·금융 이해를 위해 실시했다.


참여한 13개 팀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과 결선으로 나누어 2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경제토론회에서는 '청년 고용 확대 방안', '관광 활성화 방안', '인구유입 확대 방안', '농업 발전전략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 등이 발표됐다. /정영수 기자

**익산국토청,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해빙기를 대비해 전북지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23일부터 3월18일까지 익산국토청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건설, 하천정비, 상수도덕지 조성, 민간이파트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이 대상이다.

또한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돌바리 등 가설구조물,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등 취약 지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걸을 지켜드리는데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1588-4477
www.jbbank.co.kr